

# 프리드리히 쉐레겔의 낭만주의로의 전환\*

정 다 영\*\*

- I. 들어가는 말
- II. 근대문학에 대한 실러와 쉐레겔의 규정
- III. 쉐레겔에 미친 실러의 영향
- IV. 실러와 쉐레겔의 차이: 감상적인 것 VS 흥미로운 것
- V. 결론

## •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쉐레겔의 독일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의 전환에서 실러의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쉐레겔의 『그리스문학 연구』는 그의 독일 고전주의자로서의 면모를 확인하고, 그에게 내재해 있던 낭만주의의 맹아를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작품이다. 또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성되어 먼저 출판되었던 실러의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은 실러가 쉐레겔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두 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 쉐레겔의 낭만주의로의 전환에 실러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둘째, 쉐레겔은 실러의 영향으로 낭만주의자가 되었는데 어쩌서 실러는 독일고전주의에 머물렀는

---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536).

\*\* 전남대학교 철학과 강사

가? 근대문학을 바라보는 둘의 관점의 차이는 무엇인가?

러브조이는 실러의 논문이 슐레겔의 낭만주의로의 전환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는데, 바이저는 슐레겔의 전환에는 ‘피히테 철학에 대한 비판’이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실러의 논문은 오히려 독일고전주의를 옹호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에서는 슐레겔과 실러의 두 논문을 비교하고 실러가 슐레겔에게 끼친 영향을 파악하고, 두 사람이 근대 시인 또는 근대 시의 특징으로 묘사한 핵심 개념인 ‘감상적인 것’과 ‘흥미로운 것’을 비교함으로써 슐레겔과 실러의 차이를 해명하고자 한다.

#### • 주제어

슐레겔, 실러, 낭만주의, 흥미로운 것, 감상적인 것

## I. 들어가는 말

프리드리히 쉘레겔은 초기 낭만주의의 기초를 놓은 인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여정을 살펴보면 그가 어떻게 독일고전주의자에서 낭만주의자가 되었는지 분명치 않다. 1795년 초에 초고를 완성하고 1797년 1월에 출간한 『그리스문학 연구에 대하여(Über das Studium der griechischen Poesie)』(이하 『그리스문학 연구』)에서 독일고전주의자의 면모를 보였던 쉘레겔은 이듬해인 1798년 『아테네움 프라그먼트』에서 낭만시를 위한 선언문을 제출하며 낭만주의자로 선회한다. 쉘레겔은 자신의 전환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다.

쉘레겔의 독일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의 전환을 해명하는 문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것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쉘레겔의 전환이 외부의 영향(괴테, 피히테, 실러 등)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고(완전한 전환), 다른 하나는 쉘레겔 자신의 내부에 그러한 전환의 씨앗이 있었다는 것이다(강조점의 변화).<sup>1)</sup>

바이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자료들의 발굴과 1790년대 후반 예나 독일철학에 대한 최근 연구를 바탕으로, 쉘레겔의 전환에는 ‘피히테 철학에 대한 비판’이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밝힌다.<sup>2)</sup> 또한 그는 아서 러브조이가 주장한 것과는 반대로 실러의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에 대하여(Über naive und sentimentalische Dichtung)』(이하 『소박문학과 감상문학』)는 쉘레겔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가 독일고전주의를 옹호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다.<sup>3)</sup>

『그리스문학 연구』는 쉘레겔의 초기의 독일고전주의자로서의 면모를

1) 프레더릭 바이저 저, 김주휘 역, 『낭만주의의 명령, 세계를 낭만화하라』, 그린비, 2011, 196쪽.

2) 앞의 책, 197~98쪽.

3) 앞의 책, 214쪽.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에게 내재해 있던 낭만주의의 맹아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작품이다. 또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성되어 먼저 출판되었던 실러의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은 실러가 슐레겔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과제는 실러의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이 슐레겔의 『그리스문학 연구』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고, 슐레겔이 어떻게 독일고전주의자에서 낭만주의자로 변모하게 되었는지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초기 낭만주의의 발생 근거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두 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 슐레겔의 낭만주의로의 전환에 실러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슐레겔은 『그리스문학 연구』에 대한 초고를 완성한 뒤, 실러의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을 읽게 된다. 그리고 약 2년 뒤에 「서문」을 덧붙여서 출판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서문」에서 슐레겔 자신이 밝힌 실러의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sup>4)</sup> 둘째, 슐레겔은 실러의 영향으로 낭만주의자가 되었는데 어째서 실러는 독일고전주의에 머물렀는가? 근대문학을 바라보는 둘의 관점의 차이는 무엇인가?

슐레겔이 낭만주의자로 변모하는데 실러가 일정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러는 독일고전주의에 머물렀고 슐레겔은 낭만주의로 이행하게 되었는가를 탐구하기 위해 실러의 『소박문학과 감상문학』과 슐레겔의 『그리스문학 연구』를 비교한다. 특히 두 사람이 근대 시인 또는 근대 시의 특징으로 묘사한 핵심 개념인 ‘감상적인 것(das Sentimentalische)’과 ‘흥미로운 것(das Interessante)’을 비교·분석하고 근대문학에 대한 둘의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슐레겔과 실러의 차이를 해명하고자 한다.

4) 실러는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에 관하여』를 1795년 11월부터 1796년까지 『호펜』지에 세 편의 논문으로 나누어 차례차례 발표했다가 1800년에 한데 묶어 출간했다. 슐레겔은 1795년에 『그리스문학 연구에 관하여』의 초고를 완성하고, 그해 12월에 출판사로 보냈다. 1797년 1월, 출판 직전에 잡지에 실린 실러의 논문 2부를 읽게 된 슐레겔은, 실러의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언급한 「서문」을 덧붙여 책을 출판한다.

## II. 근대문학에 대한 실러와 쉐레겔의 규정

실러와 쉐레겔은 동일한 시기에 고대문학과 비교를 통해 당시의 문학을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고, 1년여의 편찬을 두고 책을 발간했다.<sup>5)</sup> 야우스는 두 글이 거의 한 세기 전에 프랑스에서 전개되었던 ‘신구논쟁’에 대한 답변으로, 이미 종결되었지만 새롭게 제기된 딜레마에 대한 대담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6)</sup> 또한 두 글은 독일문학사의 독일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데서도 흥미로운 텍스트다. ‘그리스문학 연구’라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쉐레겔은 고대파의 입장에서 고전주의적 예술 이상을 옹호했지만, 바로 직후에 낭만주의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여기서는 두 텍스트에 나타난 실러와 쉐레겔의 근대문학에 대한 규정을 분석하고 고대문학과 근대문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근대문학에 대한 실러의 규정

#### 1) 소박과 감상의 구별

실러는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의 서두에 우리의 자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 언급하며, 이 ‘자연’을 키워드로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을 구별한다.

5) 야우스는 이 두 텍스트에 실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한 서한』, 그리고 『독일 관념론의 가장 오래된 체계 구상』을 덧붙여 ‘하나의 시대전환’을 명시하고 있는 텍스트로 분류한다. 여기서 “새로운 현대성의 발현”이 선언되었고, 낭만주의가 선풍되었다고 보았다. 한스 로베르트 야우스 저, 김경식 역, 『미적 현대와 그 이후』, 문학동네, 1999, 104쪽.

6) 야우스 저, 장영태 역,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문학과 지성사, 1983, 71쪽.

시인은 자연이거나 아니면 잃어버린 자연을 추구하거나 할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문학의 형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형식을 통해서 시문학의 모든 영역이 측정된다. …… 시인은 자연이거나 아니면 자연을 추구할 것이라고 나는 말했다. 전자는 소박시인이 되고, 후자는 감상시인이 된다.<sup>7)</sup>

시인은 내적자연(본성)과 외적자연(자연)의 합일된 상태를 표현하거나 외적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이 상실한 내적자연을 이성을 통해 추구하는 자이다. 실러는 자연과의 통일을 이루고 있는 시인은 소박시인으로, 자연과 떨어져서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시인은 감상시인으로 분류한다. 실러는 이처럼 자연과의 관계의 차이를 통해 시인의 종류를 구별하며, 이는 고대문학과 근대문학의 구분과 일치한다. 소박시인은 고대문학에 감상시인은 근대문학에 속하며, 이런 차이는 인간의 성장과정, 인류의 발전과정에 비유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연에 대하여 애착을 느낄 때의 감정은 지나간 유년기와 천진난만한 순수성의 시기를 아쉬워하는 감정과 몹시 유사한 것이다. 우리들의 유년기는 문명화된 인간에게서 아직도 볼 수 있는 유일하고 티없는 자연인 것이다. …… 그리스인은 자신과 신을 일치시키고, 인간성의 감정을 행복으로 삼았으며, 인간성에서 자신의 극한에 정지한 채로 다른 모든 것을 인간성에 접근시키려고 노력해야 했다. 한편 우리 근대인들은 자기 자신과 일치하지 않고, 인간성의 경험에서도 불행했으며, 인간성을 탈출하는 일과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형식을 시야에서 없애는 일에 가장 절실한 관심을 갖는다.<sup>8)</sup>

근대인들의 자연에 대한 애착은 문명화되기 이전 자연과의 통일상태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며, 성인이 천진난만한 유년시절을 그리워하는 감정

7) 프리드리히 실러 저, 장상용 역, 『소박문학과 감상문학』,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6, 29~35쪽.

8) 앞의 책, 27~28쪽.

과 유사하다. 이 유년시절 또는 자연과의 통일의 이상은 고대 그리스의 문화다. 근대인들은 자연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불행에의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 물론 고대 그리스 문화에 대한 감정은 고대인들의 감정이라기보다 고대인들을 바라보는 근대인들의 감정이다. 고대인들은 자연 그 자체를 자연적으로 느꼈을 것이지만, 우리는 자연이 아니라 다만 자연스러운 것을 느낄 뿐이라고 근대인들은 생각한다.<sup>9)</sup> 근대문학에 대한 실러의 설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잃어버린 자연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다. 이때의 자연은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 모두를 포괄한다. 그는 “자연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건강에 대한 환자의 느낌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한다.<sup>10)</sup>

고대문학과 근대문학의 구분을 통해 실러는 소박시인의 임무와 감상시인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전자의 상태, 즉 인간이 아직은 그 모든 힘과 함께 조화적인 통일로서 작용하고, 따라서 인간의 천성 전체가 현실에서 완전히 표현되는 상태, 즉 자연적인 단순의 상태에서는 현실적인 것의 가능한 한 완전한 모방이 시인의 업무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후자의 상태, 즉 인간의 천성 전체의 조화적인 힘이 단지 이념에 지나지 않는 문화의 상태에서는 현실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일, 다시 말해서 결국 같은 귀착점에 이르게 되지만 이상의 모사가 시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1)</sup>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었을 때는 감각과 이성이 분리되지 않았으며 둘이 대립하지도 않았다. 인간의 감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인간의 이성은 감각내용을 상상력을 통해 형상화할 수 있었다. 때문에 소박시인은 다만 현실적인 것을 완전하게 모방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문화의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 내면에 있는 감성적

---

9) 앞의 책, 28쪽.  
 10) 앞의 책, 28쪽.  
 11) 앞의 책, 36쪽.

조화가 상실되고, “고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감정과 사고 사이의 일치는 단지 관념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sup>12)</sup> 따라서 감상시인의 임무는 자연과의 통일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현실을 그대로 감각하지 못하는 감상시인은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상화한다. 때문에 감상시인의 임무는 ‘자연의 모사’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이상의 모사’이다.

## 2) 근대문학에 대한 실러의 평가

이처럼 실러는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고대와 근대, 소박시인과 감상시인을 구분하고 그들의 임무의 차이를 구별한 뒤 친구논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 즉 고대문학과 근대문학의 우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그 때문에 고대와 현대의 시인들, 즉 소박시인과 감상시인은 전혀 서로 비교될 수 없었거나, 아니면 단지 공통의 고차적인 개념(그러한 개념은 실제로 존재한다)하에서만 비교되었어야 했다. 왜냐하면 물론 시문학의 장르에 대한 개념을 전에는 일방적으로 고대의 시인에게서 추상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과 비교해서 현대의 시인들이 멸시받게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진부한 생각도 없을 것이다.<sup>13)</sup>

실러는 고대 시와 근대 시를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고대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준으로 근대 시를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근대인들이 고대인들의 작품에서 보았던 ‘미적 완전성’이라는 이상은 자연과의 합일 상태에 있었던 역사적 시기에 가능했던 이상일 뿐이다. 그 이상은 완결된 것이고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박시인이 일을 마치는 곳에서부터” 감상시인은 자신의 일을 시작한다.<sup>14)</sup>

소박시인과 감상시인의 목표는 “인간적인 자연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

12) 앞의 책, 36쪽.

13) 앞의 책, 39쪽.

14) 앞의 책, 89쪽.



것”이다.<sup>15)</sup> 고대와 근대의 시인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하지만 서로 다른 길을 통해 그 목표에 다다르려 한다.

고대 시인과 현대 시인, 소박시인과 감상시인이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려다가 다다른 길의 상이함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즉, 전자가 자연과 개성과 발달한 감성으로 우리들을 감동시킨다면, 후자는 이념과 높은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에 똑같이 거대하면서도 그리 넓지 않은 위력을 입증하려는 것이다.<sup>16)</sup>

소박시인이 자연에 있는 통일되고 완성된 전체인 인간성을 “그 충만한 내용에 따라 현실 내에서” 표현한다면, 감상시인은 이미 잃어버린 자연의 통일을 “자신의 내부로부터 또다시 회복시키고 인간성을 자신의 내면에서 완전하게” 만들어 표현한다.<sup>17)</sup> 소박시인이 “자연을 통해, 감각적인 진실을 통해, 행동하는 현재를 통해서” 감동을 준다면, 감상시인은 “이념을 통해서”, 즉 잃어버린 자연이라는 이상에 다다르려는 그의 이념과 높은 정신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sup>18)</sup>

실러는 자연과의 조화를 상실한 근대 시인의 상황을 나쁘게만 보지 않는다. 잃어버린 자연 대신 획득한 문화는 ‘이성과 자유의 길을 통해’ 우리를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루소적인 ‘자연으로의 회귀’를 비판한다. 실러는 루소가 “충분히 완성된 교양을 갖춘 정신적인 조화”를 추구하기보다 “정신이 결여된 단조로운 원시상태”로 돌아가게 하며, “문화의 완성을 기대하기보다 처음부터 문화의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보았다.<sup>19)</sup>

루소에 대한 비판에서 드러나듯 실러의 감상시인이 추구하는 자연은

---

15) 앞의 책, 86쪽.  
 16) 앞의 책, 66쪽.  
 17) 앞의 책, 85쪽.  
 18) 앞의 책, 27쪽.  
 19) 앞의 책, 57쪽.

이미 잃어버린 고대의 자연이 아니다. 스톤디의 지적처럼 감상시인은 “자연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자연으로의 진보이며, 자유를 알지 못하는 상실된 자연이 아니라, 자유와 필연성을 화해시키는 자연으로의 진보”를 추구한다.<sup>20)</sup> 감상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념에 대한 절대적인 능력의 자유’를 활용해 ‘이상적인 자연’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무한히 노력한다. 따라서 근대의 예술은 ‘정신의 예술’이며, ‘무한의 예술’이다.

실러는 자연을 상실한 근대 시인은 새로운 조건에서 자신이 가진 문화와 이성의 힘을 활용해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실러의 근대문학에 대한 이런 관점은 슐레겔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슐레겔은 고대문학과 근대문학의 이상의 상이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근대문학이 과도한 이성의 사용으로 흥미로움만을 추구하며 목적 없이 혼돈 속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혼돈과 방황으로 보이는 근대문학이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 자연으로의 회귀가 아닌 이상적인 자연이라는 목표를 향한 무한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실러의 지적은, 슐레겔로 하여금 근대문학이 목적 없는 무정부적인 혼돈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의 무한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한의 예술’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분투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했다.

## 2. 슐레겔의 『그리스문학 연구』

### 1) 근대문학에 대한 슐레겔의 규정

슐레겔은 『그리스문학 연구』를 쓸 때, 빙켈만에 의해 촉발된 ‘고대 그리스에의 열광’에 깊이 심취해있었다. 빙켈만이 그리스의 조각에서 완전한 아름다움의 원형을 발견했다면, 슐레겔은 문학에서 그것을 발견했다.<sup>21)</sup> 고대

20) Peter Szondi, “Das Navie ist das Sentimentalische”, *Schriften II*, Frankfurt/M., 1978, p. 95.

21) 에른스트 벨러 저, 장상용 역, 『슐레겔』, 행림출판, 1987, 35쪽.

문학의 정점은 고대 그리스문학이다. 쉐레겔은 그리스문학이 도달한 황금기의 정점을 “자연적 문화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으로 평가한다.<sup>22)</sup>

『그리스문학 연구』는 나중에 덧붙여진 「서문」을 제외한다면 근대문학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한다. 1장의 제목인 「근대문학의 현재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드러나듯 쉐레겔은 근대문학을 혼돈과 목적 불명의 상태로 파악한다.

근대문학은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근대문학이 추구하는 확실한 목표가 없고, 그 교양은 특정한 방향성이 없으며, 근대문학사 대부분이 합법칙적인 연관을 지니지 않고, 전체가 통일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눈에 띈다. …… 전체적인 지속성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완전한 아름다움이 결여되어 있다.<sup>23)</sup>

쉐레겔은 근대문학이 문학을 포함한 모든 예술의 고전적인 목표인 ‘아름다움’의 결여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근대문학은 무궁무진한 많은 내용과 양을 축적하고 있지만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조화와 완성, 기대의 충족, 완전한 즐거움이 아닌 추함, 혼란, 들끓는 절망 등이 뒤섞여 부정부적 혼란을 야기한다.

개성적인 것, 특징적인 것 그리고 철학적인 것이 근대문학의 작품이라면 어디에서나 압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보다 더 잘 근대적인 미적 문화의 인위적 특성을 해명하고 입증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sup>24)</sup>

근대문학의 특성은 개성적인 것, 특징적인 것, 철학적인 것의 압도적 표현에 있다. 이것은 실러가 근대문학의 특성을 감상적이라고 표현한 것과 유사한데, 여기에 개성과 특징을 드러내는 특성이 추가된다. 고대문학

22) 쉐레겔 저, 이병창 역, 『그리스문학 연구』, 먼빛으로, 2015, 114쪽.

23) 앞의 책, 27~30쪽.

24) 앞의 책, 63쪽.

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다면, 근대문학은 자연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해 그것을 개성적이고,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고대문학과 근대문학의 이상은 다르다. 슐레겔은 고대문학과 근대문학의 이상의 상이성을, 고대문학의 이상이 ‘아름다움’이라면 근대문학의 이상은 ‘흥미로움’이라고 선언한다.

보편타당성이 이처럼 결여되어 있다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타성적인 것이나 특징적인 것, 개성적인 것이 이처럼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근대문학의 일관된 방향 즉 흥미로운 것에 기초한 근대의 미적인 문화 전체의 일반적 경향이 저절로 설명된다.<sup>25)</sup>

여기서 근대문학의 이상으로 제시된 ‘흥미로운 것’이라는 개념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취미판단의 특성으로 제시된 ‘무관심성’이라는 개념과의 연관에서 이해해야 한다.<sup>26)</sup> ‘무관심성’은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즐거움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칸트는 어떤 ‘관심(Interesse)’도 개입되지 않은 만족감을 주는 대상을 미적 대상이라고 보았으며, 이 만족감을 “무관심한 만족(uninteressierten Wohlgefallen)”으로 표현한다.<sup>27)</sup> 여기서 관심은 특히 ‘대상의 현존에의 관심’이다. 대상에 대한 욕망, 이끌림이 배제된 것이기에 나의 주관적인 특성과는 무관하고, 그 때문에 나에게 아름답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모두에게 아름다운 대상일 거라고 기대된다.

이 ‘무관심성’과 대비해 생각해본다면 ‘흥미로운 것’은 주관의 관심이 반영된 것이고, 주관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 이것은 특징과 개성이 뚜렷

25) 앞의 책, 79~80쪽.

26) 여기서 ‘흥미로운 것’으로 번역하고 있는 ‘Das Interessante’는 ‘흥미’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관심’이라는 의미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특히 칸트적 의미에서 보자면 이것은 ‘관심에 따르는 것’이며, 이는 아름다움을 판단할 때 우리가 가지는 태도인 ‘무관심성(관심에 따르지 않는)’과 대비된다. 우리는 아름다움에 이끌릴 때 ‘관심에 따르지 않고’ 관조적 태도를 취하게 되므로 이 판단은 나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이 된다.

27) Immanuel Kant, *Kritik der Urteilskraft*, Felix Meiner, Hamburg, 2001, p. 50.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만족감을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흥미를 유발할 수 없는, 따라서 보편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완전한 흥미로운 것’ 또는 ‘최고로 흥미로운 것’이란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각자의 흥미를 끄는, 관심을 끄는 것을 추구할 것이고 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또한 칸트의 무관심한 판단을 벗어난 근대문학은 진리와 도덕성의 관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2) 근대문학에 대한 쉐레겔의 평가

쉐레겔은 근대문학의 이런 흥미로운 것의 추구는 ‘개성의 과잉’을 낳게 되고, 무분별한 개성들의 향연에 피로해지면 다시 객관적인 것에 대한 선호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근대문학은 다만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는다.

흥미로운 것은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며 근대문학의 최종 목표는 최고로 아름다운 것, 즉 객관적인 미적 완전성이라는 극한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 흥미로운 것이 지배적이더라도 이는 취미의 역사에서 단순히 잠정적인 전환기 국면일 뿐이다. 왜냐하면 흥미로운 것의 지배는 결국 필연적으로 부정되고 말기 때문이다.<sup>28)</sup>

쉐레겔은 근대문학에 ‘흥미로운 것’이라는 고대문학과 다른 자율적인 이상을 부여했지만 이를 궁극적인 목표로 보진 않았다. 그는 근대문학의 특성을 “충족되지 않은 동경, 갈기갈기 찢어진 정서, 전체적인 것의 무법칙성, 특정된 것, 개별적인 것 및 관심을 끄는 것의 총체적 편중”으로 비판한다.<sup>29)</sup> 고대인의 미적 완전성의 이상에 사로잡혀 있던 쉐레겔은 근대문학의 이런 특성들이 과도기적이며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았고, 궁극적으로는 고전적인 객관적 아름다움을 향해 가게 되리라고 보았다.

28) 쉐레겔, 『그리스문학 연구』, 81~82쪽.

29) 야우스,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89쪽.

### Ⅲ. 슐레겔에 미친 실러의 영향

아서 러브조이는 슐레겔이 실러의 영향을 받아 독일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고 보는 관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다. 그는 슐레겔이 실러의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을 통해 낭만주의자가 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sup>30)</sup> 이때 근거가 되는 것은 슐레겔이 자기 형인 아우구스트 슐레겔에게 보냈던 편지<sup>31)</sup>와 자신의 책을 출판하기 직전에 실러의 글을 읽고 덧붙여 쓴 「서문」의 몇몇 대목이다.

근대문학의 지지자들은 이 논문이 그리스문학에 대한 연구로 자기들을 초대하는 것을 내가 근대문학에 대해 파멸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며 적어도 너무 성급하게 내 취미가 일방적이라고 결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근대문학을 존중해왔다. …… 성찰적 작가에 대한 실러의 논문은 흥미 위주 문학의 특성에 관한 나의 통찰을 확장하여 준 것 외에도 고전 문학의 영역을 구획하는 경계선을 새롭게 이해할 빛을 나 자신에게 주었다. 이 연구가 인쇄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그의 논문을 읽었더라면 근대문학의 기원이나 원초적 예술성에 관한 절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덜 불완전하게 되었을 것이다.<sup>32)</sup>

30) Arthur O. Lovejoy, “Shiller and the Genesis of German Romanticism”, *Essays in the History of Ideas*, New York: Capricorn, 1960, p. 216.

31) 슐레겔은 형인 아우구스트 슐레겔에게 1796년 1월 16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 편지는 실러의 논문이 슐레겔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드러낸다. “감상적인 것에 대한 실러의 이론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아서 요 며칠간 그걸 읽고 메모하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만약 형이 나의 논문을 읽을 수 있다면 왜 그것이 이토록 나의 흥미를 끄는지 이해할 거야. 실러는 나에게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해 주었어.” Friedrich Schlegel, *Kritische Friedrich-Schlegel-Ausgabe*, hrsg. Ernst Behler et al., München: Schöningh, 1958~2006, X X III, p. 271.

32) 슐레겔, 『그리스문학 연구』, 9~11쪽.

그는 자신의 연구가 신구논쟁을 증재하고 고대의 자연적인 문화와 근대의 인위적인 문화의 차이를 밝히려는 시도이며, 자신이 고대문학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다시 말해 근대문학에 대한 자신의 비판을 근대문학에 대한 파멸선고로 오해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 또한 그는 실러와 유사하게 아름다움과 예술의 객관적 법칙을 근대문학에 무분별하게 적용해 근대문학을 가치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근대문학의 이상이 고대문학의 객관성의 이상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바이저는 러브조이의 입장에 반대하며 위에 제시한 인용문은 쉐레겔이 독일고전주의적 입장을 버리는 선언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바이저는 「서문」에서 쉐레겔은 자신의 기본전제들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여전히 근대문학의 특징인 ‘흥미로운 것’은 미적 완전성으로의 필수적인 예비단계로서 합법화될 수 있고 잠정적인 미적 가치를 지닌다는 본문에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러의 논문은 그로 하여금 독일고전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하도록 추동했다.”고 보았다.<sup>33)</sup>

바이저의 주장은 「서문」의 내용 자체만 놓고 볼 때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그것이 실러가 쉐레겔로 하여금 오히려 독일고전주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방어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실러에 대한 쉐레겔의 언급이 자신의 책의 「서문」에 실렸다는 사실을 주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바이저는 쉐레겔이 실러의 책을 통해 변화를 겪게 되었다라도 「서문」에 그것을 날 것 그대로 쓸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는 책을 전체적으로 다시 써야 했을 것이다), 본문에서의 기본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서문」을 쓰고 1년 뒤인 1798년에 낭만시를 위한 선언문을 제출했다는 점이다. 쉐레겔의 낭만주의로의 전환에는

33) 바이저, 『낭만주의의 명령, 세계를 낭만화하라』, 214-217쪽.

실러뿐 아니라 피히테, 레싱, 헤르더 등 당대의 다양한 사상가들의 영향이 있었다.<sup>34)</sup> 그렇다면 여기서 실러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서문」에서 슐레겔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실러의 논문은 “흥미로운 문학의 특성에 관한 통찰을 확장”해줌으로써, 근대문학의 가치를 확실하게 자각하게 해주었다.<sup>35)</sup> 슐레겔 역시 고대문학과 근대문학의 이상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고대문학에 대한 열광과 객관적 미에 대한 이상의 추구는 흥미로움을 추구하는 근대문학을 ‘미적 혁명’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과도기적인 것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한계를 낳았다. 하지만 실러는 근대문학은 고대의 ‘소박한 자연’을 상실했지만, 문화와 이성의 힘에 의지해 ‘이상적인 자연’을 향해 나아가는 무한한 이상을 추구하는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실러의 논문은 슐레겔로 하여금 근대문학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해주었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근대문학의 특성인 ‘흥미로운 것’의 주관성을 긍정할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바이저 또한 다른 논문에서 실러가 슐레겔에게 근대문학에 숨겨진 윤리적 목적을 알게 해주었으며, 이상을 추구하는 근대문학의 가치를 옹호할 수 있게 만들었음을 인정한다.<sup>36)</sup> 슐레겔의 근대문학에 대한 긍정은 독일고전주의를 벗어나 낭만주의로 향하게 하는 결정적인 동력이 된다. 슐레겔은 이미 『그리스문학 연구』에서 실러보다 더 명확하고 상세하게 근대문학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34) 바이저가 앞에서 제시한 『낭만주의의 명령, 세계를 낭만화하라: 초기 독일낭만주의 연구』 7장에서 슐레겔이 실러의 영향하에서 낭만주의자로 변모했다는 러브조이의 주장을 비판한 것은, 실러의 영향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보다 실러의 영향보다는 피히테의 영향, 즉 피히테 철학에 대한 슐레겔의 관점 변화가 결정적이었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35) 슐레겔, 『그리스문학 연구』, 11쪽.

36) “실러는 근대 시 뒤에 숨겨진 심오한 윤리적 목적, 즉 무한한 것을 열망하고 최고선과 지상에서의 신의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목적을 슐레겔에게 깨닫게 했다. …… 슐레겔에게 근대 시의 가치를 확산시켰던 것은 다른 아닌 이상에 대한 추구였다.” 바이저 저, 심철민 역, 『계몽, 혁명, 낭만주의』, 도서출판 B, 2020, 457쪽.



#### IV. 실러와 쉐레겔의 차이: 감상적인 것 VS 흥미로운 것

실러의 감상문학의 진보적 성격이 낭만주의 문학 이론에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야우스는 감상문학과 낭만주의 문학 이론의 세 가지 공통점을 첫째 무한한 것의 예술로서의 진보성, 둘째 세계 전체와의 상실된 조화의 느낌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관계, 셋째 유년기와 고대의 단순성을 향한 동경으로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관계로 규정했다.<sup>37)</sup> 하지만 실러의 ‘감상적인 것’과 쉐레겔의 ‘흥미로운 것’이라는 개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둘의 평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실러는 『소박문학 감상문학』에서 소박시인과 감상시인을 구분하면서 셰익스피어를 소박시인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고대인 중에서는 호메로스가, 근대인 중에서는 셰익스피어가 그러하다. 서로가 대단히 상이하고 헤아릴 수 없이 시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두 시인은 바로 이와 같은 특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한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셰익스피어를 처음 알고는 격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차가움과 무감각성 때문이었다.<sup>38)</sup>

실러는 소박시인의 특성으로 ‘차가움과 무감각성’을 꼽으며 자신이 셰익스피어에게 격분했던 사실을 토로한다. 그 이유는 실러가 감상시인들의 서술 방식에 익숙해져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을 때에도 거기서 셰익스피어의 마음과 생각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실러는 소박시인의 임무는 현실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모방하는 것이므로, 작품에서 작가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무미건조한 진실성’으로 서술한다고 보았는

37) 야우스,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106쪽.

38) 실러, 『소박문학 감상문학』, 30쪽.

데,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서 작가는 드러나지 않고 작품의 배후에 존재하며,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듯 기술하는 것을 보고 실러는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

실러는 소박시인은 “대상을 그의 모든 한계를 가지고 표현하는 경우, 즉 대상을 개별화할 경우에”, 감상시인은 “대상에서 모든 한계를 제거할 경우, 즉 대상을 이상화할 경우에” 무한한 내용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sup>39)</sup> 따라서 소박시인은 구체적인 것, 현실적인 것을 세세하게 묘사하는 자이고, 감상시인은 현실이 아닌 이상을 묘사하는 자이다. 실러에게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이상을 투영해 인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무한을 추구하는 소박시인’으로 분류되었다.<sup>40)</sup>

하지만 슐레겔은 셰익스피어를 근대문학의 핵심이자 근대문학의 정점으로 간주한다.

셰익스피어는 모든 예술가들 가운데 근대문학의 정신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탁월하게 그려내는 예술가이다. …… 흥미로운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누가 그를 능가할 자가 있었는가? 온갖 열정이 지니는 활력이라는 점에서는? 특징의 묘사가 모방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는 점에서는? 유일하고도 독창적이라는 점에서는?<sup>41)</sup>

슐레겔은 셰익스피어를 흥미로운 것을 가장 잘 구현한 근대문학의 대표자로 인정하며, 다른 사상가들이 셰익스피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39) 앞의 책, 81쪽.

40) 러브조이는 실러가 셰익스피어에게 마음을 열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그의 도덕성의 결여를 꼽는다.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은 이상화된 캐릭터가 아니라, 개별화되고 모든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셰익스피어가 도덕적 이상을 표현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듯 보였고, 따라서 관객 또는 독자를 고귀하게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Lovejoy, op.cit., p. 225.

41) 슐레겔, 『그리스문학 연구』, 73~74쪽.

고 비판한다. 셰익스피어 문학에 대한 그의 분석은 ‘추의 미학’의 선취라고 할 만하다.<sup>42)</sup>

그의 문학을 아름다움의 예술로 평가하는 사람은 작가 셰익스피어에 대한 통찰을 더 많이 얻을수록 그리고 더 잘 알게 될수록 더 깊은 모순에 빠져들 뿐이다. 자연이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한데 섞어서 또한 동등하게 풍부하고 풍요롭게 생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 역시 그렇다. …… 어떤 것도 셰익스피어처럼 역겹고 쓰라리며 짜증나고 욕지거리고 진부하고 소름 끼치게 하는 것은 없다. …… 종종 그는 대상의 가족을 벗겨내며, 욕지거리 나도록 부패하고 있는 도덕의 시체를 마치 해부용 칼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파헤친다.<sup>43)</sup>

셰익스피어는 삶을 이상화해 표현하지 않았다. 현실의 아름답고 고귀한 부분만이 아니라, 더럽고 진부하고 역겨운 추한 면까지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는 고전적인 척도에서 볼 때는 아름답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존재의 총체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인 삶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면들을 예술적 서술에 포함했다.<sup>44)</sup>

셰익스피어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분류는 이후 쉐레겔과 실러의 상반

42) 쉐레겔의 이 텍스트는 ‘추의 미학의 시작점’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루카치는 이 저작이 “최초로 추의 문제를 현대문학의 중심물음으로 제기했다.”고 보았고, 야우스는 “추에 대한 첫 이론의 유명한 시도”로 평가했으며, 젤레는 “현대적 추의 미학의 가장 중요한 첫 부분”이라고 보았다. Georg Lukács, *Skizze einer Geschichte der neueren deutschen Literatur*, Neuwied, 1975, p. 69; 야우스,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89-90쪽; Carsten Zelle, “Ästhetik des Häßlichen: Friedrich Schlegels Theorie und die Schock- und Ekelstrategien der ästhetischen Moderne”, *Ästhetische Moderne in Europa: Grundzüge und Problemzusammenhänge seit der Romantik*, hrsg. von S. Vietta und D. Kemper, München, 1998, p. 215. 쉐레겔의 『그리스문학 연구』를 추의 문제와 관련해 조명한 국내 논문은 김은정을 참고할 것. 김은정, 「추의 현대적 이해: 쉐레겔의 「그리스 문학 연구에 대하여」」, 『독일 현대문학』 vol. 21, 2003.

43) 쉐레겔, 『그리스문학 연구』, 76-77쪽.

44) Silvio Vietta, *Die literarische Moderne. Eine problemgeschichtliche Darstellung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von Hölderlin bis Thomas Bernhard*, Stuttgart, 1992, p. 224.

된 행보와 연관된다. 실러는 감상시인을 주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학이 나아갈 방향 또한 실제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묘사보다는 ‘이상적인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묘사’에 있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셰익스피어는 감상시인의 모범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슐레겔은 셰익스피어의 특성과 장점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아보았다. 슐레겔은 실러를 통해 근대문학의 가치를 긍정하게 되자 이후 셰익스피어를 근대문학의 모범으로 삼아 낭만주의의 방향을 확립하게 된다.<sup>45)</sup> 물론 슐레겔이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자로 셰익스피어만을 꼽았던 것은 아니다. 이후 슐레겔은 낭만적 포에지를 선형적 포에지, 보편적(낭만적) 포에지, 포에지의 포에지로 구분하고, 단테, 셰익스피어, 괴테를 각각의 대표자로 명명한다.<sup>46)</sup>

낭만주의로 선회한 슐레겔에게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총체성을 드러내주는 낭만시(포에지)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가가 된다. “인간적 존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 “모든 삶의 영역을 관찰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낭만주의자들에게 현실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모두 드러내는 셰익스피어는 ‘낭만적 예술의 절정’에 다름 아니었다.<sup>47)</sup>

야우스는 『그리스문학 연구』에서 고대문학을 옹호하는 듯 보였던 슐레

45) 러브조이는 ‘무한한 내용 추구’의 의미를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1) 윤리적 의미: 실현되기 어려운 도덕적 열정에서 예술의 영감을 찾는 것 2) 신비적 의미: 불가사의하고 멀리 떨어진, 일상적 경험을 초월하는, 정의 불가능한 것에 대한 선호와 동경 3) 쾌락적 의미: 기질적으로 새로운 감정, 즐거움, 소유물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을 보여주는 것 4) 노력을 위한 노력: 의식적인 이상처럼, 만족할 수 없음을 상정하고 이 이상의 찬미를 예술의 주제로 삼는 경우 5) 삶의 무한한 다양성과 흥미로움을 표현하는 것을 예술의 기능으로 보는 것.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실러는 첫 번째를 추구하고, 슐레겔은 다섯 번째를 추웠다. 슐레겔은 인간이 도달하기 어려운 숭고하고 금욕적인 도덕적 완전성을 이상으로 삼는 대신, 실제의 삶의 다양하고 무한함을 주제로 삼았다. Lovejoy, op.cit., pp. 222~223. 또한 슐레겔은 실러의 도덕적 엄숙주의를 대놓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다니다가 실러에게 손절 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을 참고하라. 벨러, 『슐레겔』, 46-49쪽.

46) 최문규, 『독일 낭만주의』,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70~73쪽.

47) 지명렬, 『독일 낭만주의 총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96쪽.

겔은 이후 낭만주의로 나아갔는데, 『소박문학과 감상문학』을 통해 고대와 근대의 대립을 “근대파의 입장에서 계몽주의 정신 아래 진보적으로 해소 시켰던 실러는 후퇴적인 바이마르의 고전주의”에 남게 되는 역설에 대해 지적했다.<sup>48)</sup> 실러는 이론적 분석에 있어서는 근대문학을 옹호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진보적 관점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작품의 생산에 있어서는 독일고전주의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소박문학과 감상문학』 이외에 실러의 다른 이론적 저작과 작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는 실러의 과도한 이상주의와 도덕성에의 경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만을 해볼 뿐이다. 실러는 근대문학이 무한성을 추구한다고 보았지만 러브조이의 지적처럼 그 의미를 주로 윤리적인 것에서 찾았다.<sup>49)</sup> 그 때문에 도덕성의 결여 그리고 이상적 인간이 아닌 현실적인 인간의 묘사를 이유로 셰익스피어를 감상시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소박시인으로 남겨 둘 수밖에 없었다.

## V. 결론

쉐레겔의 독일고전주의에서 낭만주의로의 전환의 동기 혹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특히 실러가 그 전환에 적극적인 동기를 제공했다는 것에 여러 학자가 동의했지만, 바이저는 그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듯 보인다. 실러의 영향을 드러내는 근거로 삼는 텍스트인 쉐레겔의 『그리스문학 연구』 「서문」에 대해 바이저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실러의 영향을 부정하는 혹은 실

48) 야우스,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108쪽.

49) 46번 각주 참고.

러의 영향을 약화시키는 바이저의 주장을 재검토하고, 슐레겔의 전환에 실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두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살피고자 했다.

슐레겔은 『그리스문학 연구』에서 고대문학과 근대문학의 상이성을 파악하고 있었고, 특히 근대문학의 특성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서술했다. 그가 서술한 근대문학의 특성은 최초로 ‘추’를 독자적인 미적 범주로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슐레겔은 여전히 고전적인 미의 이상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근대문학의 특성을 미적 혁명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실러의 논문은 그에게 “새로운 시인의 원리로서 흥미로운 것에 대해 끝내 동일한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었다.”<sup>50)</sup>

슐레겔은 실러를 통해 근대문학은 이성을 통해 자연을 보완하며 무한한 이상을 추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근대문학을 긍정적으로 옹호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이 근대문학의 정수로 보았던 셰익스피어의 특성은 이후 낭만시의 특성으로 서술된다. 낭만주의로 선회한 슐레겔에게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총체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낭만시(포에지)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가가 된다.

본 논문은 두 가지 물음을 제시하고 답변을 시도했다. 하지만 두 번째 물음인 슐레겔은 실러의 영향으로 낭만주의자가 되었는데 어째서 실러는 독일고전주의에 머물렀는가에 대한 대답은 아직 충분치 않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실러의 문학에 대한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므로, 이는 실러에 대한 후속 논문의 과제로 남겨 둔다.

---

50) 앞의 책, 98쪽.

## • 참고문헌

### <자료>

프리드리히 실러 저, 장상용 역, 『소박문학과 감상문학』,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6.

프리드리히 슐레겔 저, 이병창 역, 『그리스문학 연구』, 먼빛으로, 2015.

Kant, Immanuel, *Kritik der Urteilskraft*, Felix Meiner, Hamburg, 2001.

Schlegel, Friedrich, *Kritische Friedrich-Schlegel-Ausgabe*, hrsg. Ernst Behler et al., München: Schöningh, 1958~2006.

### <연구논저>

김은정, 「추의 현대적 이해: 슐레겔의 「그리스 문학 연구에 대하여」, 『독일 현대 문학』 21, 2003, 141~165쪽.

에른스트 벨러 저, 장상용 역, 『슐레겔』, 행림출판, 1987.

지명렬, 『독일 낭만주의 총설』,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최문규, 『독일 낭만주의』,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프레더릭 바이저 저, 김주휘 역, 『낭만주의의 명령, 세계를 낭만화하라』, 그린비, 2011.

\_\_\_\_\_, 심철민 역, 『계몽, 혁명, 낭만주의: 근대 독일 정치사상의 기원, 1790-1800』, 비(도서출판b), 2020.

한스 로베르트 야우스 저, 장영태 역,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문학과 지성사, 1983.

\_\_\_\_\_, 김경식 역, 『미적 현대와 그 이후』, 문학동네, 1999.

Lovejoy, Arthur O., “Schiller and the Genesis of German Romanticism”, *Modern Language Notes* 35, 1920. (Reprinted in *Essays in the History of Ideas*, New York: Capricorn, 1960, pp. 207~227.)

Lukács, Georg, *Skizze einer Geschichte der neueren deutschen Literatur*, Neuwied, 1975.

Szondi, Peter, “Das Navie ist das Sentimentalische”, *Schriften II*, Frankfurt am Main, 1978, pp. 59~105.

Vietta, Silvio, *Die literarische Moderne: Eine problemgeschichtliche Darstellung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von Hölderlin bis Thomas Bernhard*, Stuttgart: Metzler, 1992.

Zelle, Carsten, “Ästhetik des Häßlichen: Friedrich Schlegels Theorie und die Schock- und Ekelstrategien der ästhetischen Moderne”, *Ästhetische Moderne in Europa: Grundzüge und Problemzusammenhänge seit der Romantik*, hrsg. von S. Vietta und D. Kemper, München, 1998, pp. 197~234.



## Friedrich Schlegel's Turn to Romanticism

Jung, Da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influence of Schiller on Schlegel's transition from neoclassicism to romanticism. Schlegel's *Über das Studium der griechischen Poesie* is an important work that confirms his Neoclassicism while also identifying the Romanticism inherent within him. Schiller's *Über naive und Sentimentalische Dichtung*, completed and published around the same time, also provides important clues to Schiller's influence on Schlegel.

This paper revolves around two questions. First, how did Schiller influence Schlegel's transition from neoclassicism to romanticism? Second, if Schlegel became a romantic under Schiller's influence, why did Schiller remain a neoclassicist? What were the differences in their views of modern literature?

Lovejoy views Schiller's paper as a major influence on Schlegel's conversion to Romanticism, while Beiser argues that Schiller's paper rather led him to defend neoclassicism, and that Schlegel's 'critique of Fichte's philosophy' played a key role in his conversion.

This paper seeks to elucidate the differences between Schlegel and Schiller's two papers by comparing and identifying Schiller's influence on Schlegel, and by comparing the key concepts of 'das Sentimentalische' and 'das Interessante' that they both characterize as aspects of modern poets or modern poetry.

---

\* Instructor at the Department of Philoso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Schlegel, Schiller, Romanticism, das Sentimentalische,  
das Interessante

필자 E-Mail: cassus103@gmail.com

투고일: 2024년 1월 22일 / 심사완료일: 2024년 2월 1일 / 게재확정일: 2024년 2월 15일